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을지, 전주요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2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1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저의 중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 전성요 -

저는 목실한 믿음으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교구에서 조장님이라고 불리셨고 지금도 수구역장 직분으로 여전히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젊으셨을 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친정아버지는 지금은 손자와 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시장과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지로 전도하러 나가시면 저는 두 남동생과 함께 몰래 어머니를 뒤따라가서 우리도 전도하겠다고 복음지를 나눠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저희 가족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시절 저는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셨기에 저는 교회학교 예배와 성경공부와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교회주차장에서, 비어 있는 성전에서, 교사실에서 저처럼 부모님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지를 접고, 성전을 꾸밀 포스터를 그리고, 그리고 찬송과 율동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성전 안팎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에게 많은 정찬과 사랑을 받았습니.

교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성가대에서 오래 봉사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길러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여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없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악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화성학, 시창, 청음, 작곡, 합창지휘과정 등 배움에 교회음악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가대지휘 봉사를 하면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 40대가 되었습니다. 그사이 음악도 전공을 하고, 교회 음악과 학부와 지휘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오라토리오 작곡들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는 신앙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자녀 둘을 낳아 기르면서 값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삶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더 많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본을 그대로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무척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잠이 부족하고 자주 피곤을 느끼며 어지러운 적이 많았지만 육아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바빠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갈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그리고 특정 부위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직은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혈이 심해지고 멈추질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몸속에 혹이 보인다며 조직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황급히 서울대학교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선생님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온 저에게 당장 입원부터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혹이 있는데, 암으로 의심된다면서 그 상태와 다른 장기로의 전이여부를 알기 위해서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부인암 3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내 나이 이제 40초반인데 암이라니...' 한참 돌봐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자 눈물이 캉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막상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약해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딸의 얼굴,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밀검사를 받는 내내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불안감을 떨치고 마음을 추슬러 믿음과 소망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뻐할 수는 없으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병고를 통하여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치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저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힘 줄 믿고 감사 드립니다."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정으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중심에서 우리나라는 찬송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일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비와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남편과 친정부모님과 심방 오신 교구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자 또 잠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항암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당회장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 습니다. 그러자 신령한 위로를 입어 힘과 용기가 생기고 신유의 은혜로 틀림없이 완치될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암치료전문서적을 열심히 읽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방 보조치료도 병행하며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2달 동안 방사선으로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항암치료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날에는 약의 고통이 크고 무서워 아침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처방 받은 마약성진통제도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이

고통스러워 누워서 "주님! 주님! 너무 아픕니다.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하며 주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검사할 때마다 1cm, 2cm, 3cm씩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유증으로 한동안 누워서 생활하고 예배도 자리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앉았을 힘이 없어 차를 타지 못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일에 안방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이셨는지 친정어머니가 "매우 아프고 힘들겠지만 뒷자석에 누워서라도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 세수할 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아프고, 머리도 못 감고 화장도 못하는데 교회를 가라구요?'하다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자 용기가 생겨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어머니와 가족의 부축을 받아 교회에 갔습니다.

자모실 성전에 누워서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당회장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니터로 보이는 목사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처럼 즐겁게 교회생활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해주세요."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성전에서 누워 예배 드린 그 시간부터 제 발목과 허리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각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모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성전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한 주 한 주 빠르게 회복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저의 집 근처 '광명스포츠타운'에서 서울 목동 '오목교'까지 쉬지 않고 페달을 밟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저의 병이 낫도록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합심기도를 해주시고, 저의 부모님과 가족이 부단히 기도해 주셨으며 하나님께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인암 3기 진단을 받은지 2년이 지났을 때, 의사선생님이 CT검사서 폐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가족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의 병으로 인해 시어머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저희 부부 또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가족이 영생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중한 병을 고침 받으니 저와 가족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저는 교회당에서 더 은혜스럽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제가 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보라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 대투 박하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네. 크게 외치시라. 영의 모든 죄 저쳐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 영광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대 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장 소: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방 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일 시: 2월 말~(신청자에게 개별공지), 평일 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은 오후 9시~11시/2시간)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중
- ▶문 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 독서실' 담당자 (☎ 010-9175-2356)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인로 254(하인동)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성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종: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회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 (광동동) T.06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평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호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신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충남 아산시 청문로 180 T.041-533-3731

“누가복음 11장 9절~13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13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84장(새찬송가 36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자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모범적 기도문 즉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빵이 없어서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이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문’과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연속하여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심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관하여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으며, 성경에는 많은 교훈과 실제적인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신령한 생활의 문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특권과 유익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를 안다면 기도가 생활화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곤란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틔우는 것은 생존에 필수 요건입니다.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병이 든 사람,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잠수하거나 고산을 등정하고 있는 사람 등 특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숨 쉬는 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흔히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기도란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건임과 함께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배우지 않아도 하지만,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하게 제공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간으로 하여 누구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기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에게 아뢰며 무엇을 구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인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서방인이 불어있다는 나무에 빌든지, 기암괴석에게 빌든지 혹은 자신이 신봉하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신봉할지라도 사실은 여러 종류의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며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속은 것이며 또한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엘리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랴 셸이나?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엘리아가 수소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바알 선지자들에게 요구하기를 “수소한 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 놓되, 불은 지피지 말라. 나도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얹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큰 소리를 지르고 단 주위를 뛰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가 흐르니까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여 기도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이제는 엘리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단을 쌓고 제물을 얹은 다음 그 위에 열두 통의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는 의식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며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이 주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남김없이 활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왕상 18:36~39)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 열심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망에 처한 인생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세 동안의 천지창조 내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명이 4장 39절과 40절에 “너는 오늘날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야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

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믿음과 순종이 지혜롭고 옳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숨을 쉬는데 무슨 신분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이며 평등한 사회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치자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언제라도 직접 나아가서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 직접 호소하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 오리다.”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하거나 간청하러 나아갔다가 물리침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해야 할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루 세 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한 분들은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새벽기도회가 율법이 되어 정죄의식을 갖게 만든다면 오히려 폐단이 됩니다. 오늘날은 밤도 대낮같이 활동할 수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수면시간이 부족한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 몸, 특히 뇌를 혹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여 이를 율법화하고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른 지도방법이 아닙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중에 어느 때 기도

하더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엡 6:18) 하였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포로생활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지역에 흩어져 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기도처를 정하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로 강변이나 바다 근처 등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당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개인 집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되면서 도처에 교회당이 세워졌으며 교회당은 신자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리는 장소란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드린다는지, 장시간 기도하든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경우에 적합한 환경,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교회당은 다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섯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 성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므로 인생들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언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폐단과 미련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8,9)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가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헛웃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게 되며, 기도하여

응답 받는 체험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즐거움과 소대는 매우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며,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폐일연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범사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온갖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 중에는 영육간의 모든 것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예의 바르거나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례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부요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온갖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① 홀로 하는 기도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홀로 영종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하였습니다.

② 묵상기도와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둘 다 때와 장소의 형편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행하여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묵상기도란 쉽습니다. 오랜 시간의 묵상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을 물리쳐야 하고, 졸음이 오는 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피곤하고 졸음이 올 때 묵상기도 하면 졸음이 밀려들어서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짧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메모하여 이를 하나씩 보고 읽어 가며 소리 내어 기도하면 잡생각이나 졸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방언기도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써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④ 철야기도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어 편히 잠자고 있을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밤새껏 고민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 날을 계속하여 철야기도 하는 것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⑤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일 이내의 금식기도는 권장할 일이지만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장기간의 금식기도 혹은 자주 연이은 금식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자세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매우 섭섭해하셨습니다. 곤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하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된 청구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감격과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예배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기도를 끝맺으면서 “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순서를 맡은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WCC대회 한국 유치에 앞장섰던 NCKK의 홈페이지에 실린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테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곳판 대신에 신명 나는 살림의 곳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오니, 나무아미타불, 아멘” 신학대학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가증스럽고 망령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기도를 하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하고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